

제65회 KISTEP 수요포럼

주 제 : 미래세상을 바꾸는 혁신의 철학과 성공전략

담당자 : 이미화 책임(T. 02-589-2807)

포럼 종합 내용 및 미래 대응방향 정책제언

2017. 5. 24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T Evaluation and Planning

1. 개요

- 일 시 : 2017년 5월 24일(수) 10:00~12:00
- 장 소 : KISTEP 12층 국제회의실
- 발표자 : 김진영 대표 (ROA인벤션랩)
- 주 제 : 미래세상을 바꾸는 혁신의 철학과 성공전략
- 내 용 : 플랫폼, BM 이노베이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중심으로 혁신을 위한 전략 방법을 모색하고자 함
- 토론자 : 이병태 교수(KAIST), 차두원 연구위원(KISTEP), 김형택 대표 (디지털리테일컨설팅그룹)

시간	내용	비고
9:30~10:00	인터뷰	YTN 인터뷰(발표자)
10:00~10:05	개회사	임기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원장
10:05~10:10	발표자 소개	(사회) 황지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본부장
10:10~10:50 (40분)	주제 발표	김진영 ROA인벤션랩 대표
10:50~11:30 (40분)	패널소개 및 지정토론	(좌장) 황지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본부장 (패널) 이병태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차두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위원 김형택 디지털리테일컨설팅그룹 대표
11:30~12:00 (30분)	자유토론	참석자 전원
12:00	폐회	(사회) 황지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본부장

2. 발표 주요 내용

- 가까운 미래에 조직(기업)은 기존의 저성장 시대에서 어떻게 변화하여 살아남고, 성장할 것인가?
 - 이를 탐구하기 위해 Platform - Business Model Innovation - Digital Transformation의 3대 키워드를 중심으로 이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자 함
- Platform은 IT용어가 아니라 경제학자에 의해 주도되어 만들어진 새로운 시장구조를 상징하는 단어(양면시장)임.
 - 이 양면시장을 형성하기 위한 Stage Model과 새로운 Rule이 작동되는 매커니즘에 대해 살펴봄. 새로운 Rule이 작동되는 과정에서 기존 전통적인 비즈니스 모델과는 전혀 다른 요인들이 등장하고, 혁신의 원동력이 됨
- Platform을 소유한다는 것은 곧 혁신을 하고 있다는 것과 일치함.
 - 그렇다면, 왜 플랫폼을 소유한 기업들이 비즈니스 모델 혁신자라고 추앙 받고 있는지를 탐구하고, 비즈니스 모델 혁신을 위한 기본요소와 조직의 접근 Approach를 Customer Job(고객해결과제)이라는 개념에서 살펴봄
- Customer Job을 해결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고객이 접하는 제품/서비스임. 디지털 변혁은 고객해결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존재하는 제품/서비스가 제대로된 Solution으로 작동되게 하는 중요한 요소임.
 - 디지털 변혁을 디지털 역량 + 리더십 역량 관점에서 고찰해봄
- 결론적으로 Platform > Platform Mediated Network > Business Model Innovation > Digital Transformation에 의해 BM혁신속도가 더욱 더 빨라지는 상관관계가 존재함.
 - 조직이 이러한 작동 매커니즘을 이해하고, 디지털 변혁 사다리를 만들 수 있다면 미래를 지배하게 될 것임

3. 미래 대응 제언

【 주체별 미래 대응 제언 】

□ 산업계/학계/연구계 차원

○ (산업계)

- 전체 산업 및 비즈니스 구조가 빠르게 디지털로 변화되고 있음에 따라 경쟁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 기업들은 디지털 전환을 위한 생산체계, 경영전략, 비즈니스모델, 마케팅의 변혁이 필요함.
- 디지털 경영환경의 변화에 대한 리더십과 빠르고 쉬운 전략적 대응 모색이 요구됨.
- 플랫폼 비즈니스는 기존 비즈니스보다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에 항상 빠른 비즈니스(모델)과 신규 기업의 진입에 대응해야 함
- 글로벌 중심의 비즈니스 전략 추진 필요성과 함께 플랫폼 기업들의 트랜스포메이션 전략도 매우 중요

○ (학계)

- 유행어(Buzz Word) 장사에서 벗어나는 현실적인 전략과 BM개발 능력을 기업들에게 전수할 수 있는 능력 배양 필요
 - 새로운 환경 변화에 따른 국가 산업정책에 대한 연구와 고민 필요
 - 플랫폼 전략에 대한 이론화와 교육 시스템 구축 필요
 -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의 가치를 글로벌하게 알릴 수 있는 언어의 선점능력을 제공 필요
 - 새로운 시대와 서비스의 개념과 용어 창출 능력이 부재
- * Cyworld를 출시해도 한국은 이를 SNS라는 개념을 만들지 못하고 Pandora.tv가 먼저 출현해도 UCC 라는 용어를 만들지 못해 기업이 Brand의 선점효과나 글로벌 고객과의 소통 능력을 갖추지 못함.

○ (연구계)

- 우리 사회, 특히 정부와 정치권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에 대한 올바른 질문(이슈) 개발이 필요함.
- 새로운 산업 또는 산업의 가치 사슬 중에서 우리나라가 선도우위를 가질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전략적 연구 필요
- 유행어만 쫓아가는 연구 지양 필요

□ 사회 차원

- 비거래부분(Non-tradable sector)에서 거래부분(tradable sector)으로 급격히 진행중인 서비스업에 대한 규제완화와 경쟁도입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설득이 필요함.
- 디지털 혁명과 플랫폼화는 대부분 서비스 영역이거나 제조업에서 서비스화(Servitization)하는 파생적 경제나 융합경제인 경우가 많음.
- 서비스 산업의 특징이 수많은 규정과 인가사항으로 인해 이해집단의 포로화되어 있거나 전통적으로 글로벌 제조업은 대기업, 그리고 서비스업은 공공부문과 시장 중심의 서비스업은 자영업자나 영세 사업자들로 분담되어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경제구조이다 보니 자영업자와 영세업자의 서비스업은 “보호대상”의 영역으로 간주되어 왔음.
- 공유경제 플랫폼은 기술발전으로 심화되는 양극화 등의 사회적 현상의 보완재로 가능할지 등에 대한 검토 필요

□ 국가 차원

- 경제와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수단으로의 인식이 필요하며, 이해조정적 관점이 아닌 긍정적인 관점의 사회혁신적 접근이 필요함.
- 외부환경요인 분석을 통한 국가차원의 변화대응 모색 필요

- 우리가 안고 있는 많은 경제적 문제들은 내부의 요인보다 글로벌 요인에 의해 초래되는 것이 많은데 우리는 원인을 내부에서 찾는 경향이 매우 강해서 변화의 수용능력이 급속하게 저하되고 있음.
- 개발 지원 중심에서 다양한 BM 아이디어를 발굴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 등 마련이 요구됨.

【과학기술정책 측면에서의 제언】

- 뭉든지 돈 대주면 다 산업화에 성공할 것 같은 접근법은 성공 가능성이 매우 낮음으로 선택과 집종의 전략이 필요
- 단기 기술적 혁신은 기업이 더 잘할 수 있는 능력이 배양되어 있음에 따라 단기 모험적 원천기술 개발로의 이전 필요

【법·제도 개선 측면에서의 제언】

-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맞는 법적 규제완화 및 제도적 보완마련 필요
 - 기존 온라인 서비스는 온라인에서의 법적 이슈만 검토하면 충분하였으나, 플랫폼 비즈니스는 기존에 예상치 못했던 다양한 법적 규제를 검토해야만 함.
 - 모바일 앱으로 버스를 부르는 ‘콜버스’의 경우 법적 근거가 없다는 논란이 일고 있으며, 자동차 경매 서비스인 ‘헤이딜러’는 오프라인 경매장과 같은 시설물을 갖춰야 한다는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면서 잠정 폐업까지 함. 산업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맞는 법적 규제완화 및 제도적 보완마련이 필요함.
- 규제완화 차원의 경제의사결정 구조의 지방 분권화와 사회혁신 문제해결형 프로젝트식 접근방법 모색 필요

- 규제의 불확실성 요소 제거 필요

【기타 제언(사회·경제, 경제·산업, 환경·생태 등 측면)】

- 규제나 이익집단의 보호의 명분으로 신기술과 혁신의 부정적 측면을 강조하는 경향은 매우 우려스러움.
 - 자동차는 인명사고의 문제와 환경오염의 문제가 없는 완벽한 기술이라서 마차를 대체하고 도입된 것이 아님. 어느 혁신과 기술도 완결하고 무해해서 도입되지 않으며 기술이 발생하는 새로운 문제는 또 새로운 혁신이 점진적으로 해결해 가는 것임.
- “일자리주의(Jobism)의 도그마에서의 탈출이 절실함.”
 - 정부와 경제는 일자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의 파괴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혁신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
 - 혁신은 부가가치가 낮은 산업의 일자리를 파괴함으로써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의 이전이 가능해 왔음. 마부의 일자리 걱정을 하면 자동차 산업은 존재할 수 없음. 우리나라의 생산성 향상은 가발과 봉제 산업에서 중화학과 하이테크 산업으로 이전해 왔고 부가가치가 낮은 산업이 파괴되어 왔기 때문에 가능함.